특별기고

불교, '지역 소멸' 극복 대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시군구 229개 중 157개(68.6%)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8월 6일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행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린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다. 이런 가운데 천태종 구인사가 위치한 단양군은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합산한 '생활 인구'가 등록 인구 대비 9배를 기록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단양군은 "생활 인구 유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사찰과 불교계가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평창 월정사에는 연간 147만 명이 방문해 거주 주민 2500여 명에 맞먹는 소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사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40년 다수 시 · 군 유지 어려워
불교 인구 유동력, 정주 인구 수준
지역 소멸 극복 위한 '사회적 자본'
정부와 공동체 되살리는 역할 해야

'지역 소멸' 현상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이 점차 공동화(空洞化)되어 적정 인구 유지와 온전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십 개의 시·군이 2040년 이전에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회복탄력성과 다양성이 약화하는 구조적 위험이 국가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은 인구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붕괴와 정체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다.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은 '인구 이동→자본 유입→의사결정 구조 변화→쇄신 확산'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인구 유동의 문제는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과거 위성도시 건설, 공공 기관 및 대학 캠퍼스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인위적 분산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인위적 분산정책은 효과 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유치 경쟁에서 교류 인구(또는 생활 인구) 활성화, 지역 주도성과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보성(相補性) 접근 유도, 사회적 자본과의 능동적 연계·협력 등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적 자본·국민 간 다각적인 연계·협력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공간이며, 지방은 대한민국의 변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전국 각지의 소멸 위험 지역이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중심축'을 변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 극복과 대응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아닌, 국민과 지역, 정부, 사회적 자본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집단적 의무이고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종교·시민단체·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 종교·시민단체 등과 참여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 정체성' 구축이 핵심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공동체 붕괴, 정체성 상실 등이 동반되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회복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 내부의 사회적 자본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불교와 불교유산은 사람의 유인과 흐름을 촉진하는 '인구 유동력(遊動力)'을 지니고 있다. 불자들처럼 사찰을 신앙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계 인구'와 지역·사찰과 직간접적 관계는 없지만 관람,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 즉 '교류 인구'가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관계 인구와 교류 인구는 정주(定住) 인구는 아니지만, 일시적 지역 이동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소비 현상으로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의 사찰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와 교류 인구는 곧 인구와 경제흐름을 좌우하는 동인력(動因力)이며, 소멸 위기 지역의 중요한 생명력인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곳에 소재한 월정사에는 연간 147만 명이 방문하며(2025년 국립공원공단 자료), 이들의 관광 관련 지출의 규모는 평창군 거주 주민 2500여 명이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수준이다.('관광대체효과분석'에 의한 필자의 간접적 추정치) 2025년 기준 4만 명 수준인 평창군 인구수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진관사 역시 연간 26만여 명(2024년 기준)이 방문하며 이들의 지출 수준은 1000명 이상의 은평구 주민의 지역 내 소비 수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사와 진관사는 지역 명소로서 교류 인구의 방문과 소비가 상당수의 지역 주민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대체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사찰이 관계·교류 인구를 유인하고 지역 내 경제적 흐름을 견인하며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불교와 불교유산이 지닌 종교적 상징성과 관광 매력성은 불자와 관광객을 모으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힘이자 가치이고 자원인 것이다.

불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자본 중 하나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불교가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에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불교의 인구 유동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불교의 인구 유동력과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십을 모색해 지역 소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 소멸은 단지 지역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불교가 이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종교, 사라지는 지역에서 깨어나는 종교가 되길 기대한다. 위기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불교가 새 정부와 함께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숭고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함께하는 행동과 노력이 대중의 희망을, 지역의 희망을, 나라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의 희망 또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포교의 정의이고, 종교의 정의이고, 사회의 정의가 아닐까?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
(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社 說

교구본사 출가학교, 한국불교 희망 되길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본사 차원의 출가학교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오는 9월 '선 출가학교'를 개설한다. 종단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형태의 출가학교로는 첫 사례다. 이어 제21교구본사 송광사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의 출가자 수는 1990년대 400~5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에는 61명에 불과했다. 다행히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출가자 감소는 종단의 인력 기반을 약화하고, 나아가 수행·포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이 출가학교를 제도화하고 교구본사별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뜻깊다. 물론 출가학교가 출가자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가를 꿈꾸는 이들이 직접 승가의 삶을 체험하고, 출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분명 중요한 시작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성과 체계성이다. 교구본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되, 종단 차원의 운영 지침과 교육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구본사별 출가학교가 더욱 확대돼 많은 이들에게 출가의 인연을 심어 주기를 기원한다.

복날 채식, 무더위 이기는 지혜

복달임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육식 복달임 대신, 콩과 버섯 등을 이용한 채식 복달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선조들은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즐겨왔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복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양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콩국수나 버섯전골, 도토리묵밥 같은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찾는 것이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도 반영된 결과다.

불교환경연대는 수년 전부터 '복날 채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 발생의 주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제철 채소를 활용하는 채식 보양은 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 준다. 특히 과도한 동물 희생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살생과 자비의 가르침에도 부합한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날 채식은 불교적 생명관의 현대적 실천이자, 기후위기와 동물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복날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나누는 날이자, 몸과 마음을 맑히는 날이 되도록 불교계에서도 복날 채식 문화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들과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계룡사
• 주 지 : 법륜 (속명 : 권윤집)
• 승 번 : 003931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깊은내길 14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녹 원 법하